

고흥군, 제2우주센터 유치 본격 시동

공영민 군수, 우주항공청장 면담...우주항공 현안 건의 우주항공도시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 등 군민 뜻 결집

고흥군이 제2우주센터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11일 고흥군에 따르면 공영민 군수가 최근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을 면담하고, 고흥의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우주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이번 우주항공청장 면담은 공영민 군수의 당선 이후 첫 공식 행보로, 고흥을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시키고자 마련했다. 군은 국가 우주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제2우주센터의 고흥 유치, 우주발사체 사업단지 조성(대규모 견학·교육·체험 시설) 조성,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고흥 설립, 우주발사체산업 지식혁신 연합캠퍼스

오고 있다. 앞으로도 우주산업 핵심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해 고흥에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면담은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고흥의 미래를 좌우할 우주항공 핵심사업들을 정부에 건의한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제2우주센터 유치를 비롯한 주요 현안들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흥은 나로우주센터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역사와 상징성을 함께 지닌 지역"이라며 "민선 9기에는 그간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역발전을 견인할 우주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고, 고흥이 명실상부 한 한국형 스타베이스로 도약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gwangnam.co.kr



공영민 고흥군수(오른쪽)와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이 최근 고흥의 우주항공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고흥군청

광양, 고흥사랑기부제 담례품 확대 전남 드래곤즈 굿즈 등 10개 품목

광양시가 고흥사랑기부제 담례품을 확대했다. 시는 담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된 품목에 대해 고흥사랑기부제 담례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10개 품목을 담례품으로 추가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담례품은 매달이 굿즈 3종 세트, 전남 드래곤즈 굿즈(사인볼, 흡유니폼, 텀블러, 장우산, 머플러), 한우 암소 양지 국거리, 한우 암소 불고기, 참다래(플드키위), 한돈 삼겹살 등 10개 품목이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광양시 고흥사랑기부제 담례품은 총 48개 업체, 80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특히 이번 신규 담례품에는 광양을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 전남 드래곤즈 굿즈와 광양시 대표 캐릭터 매달이를 활용한 키링·파우치 등이 포함됐다. 또한 기부자 선호도가 높은 한돈 삼겹살과 한우 불고기·국거리 등을 추가해 담례품 구성을 다양화했다. 담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 선정 결과는 광양시청 누리집(https://gwgyang.go.kr)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선정된 담례품은 공급업체 설명회와 고흥사랑기부제 등록 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제공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담례품 추가 선정으로 기부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담례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담례품을 발굴해 고흥사랑기부제 운영에 내실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 20만원까지는 44%, 2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담례품을 받을 수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서영학 여수시장 당선인 "실무형 인수위로 미래 10년 설계"

위기극복 시민주권 기획위원회 출범...오늘 현판식

서영학 민선 9기 여수시장 당선인(사 진)은 11일 시청 인수 작업을 이끈 '위기극복 시민주권 기획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당선인 측은 이번 위원회를 기존 인수위원회의 관행에서 벗어나 '진짜 일하는 실무형 기획 조직'으로 규정하고, 지역의 구조적 위기 진단과 함께 향후 10년

한 안기원 전남대 산림자연학과 교수가 맡았고, 부위원장은 시민사회 활동가 가인 김태희 여수YMCA사무총장이 임명됐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정우주 의원은 여수를 스마트 AI 도시로 탈바꿈할 청사진을 설계한다. AI를 활용한 시민소통센터, 회의 공개, 이행정리 시스템 등 시민의 목소리가 데이터가 되고, 데이터가 행정 의사결정으로 연결되는 AI 행정도시라는 메시지를 만들 예정이다. 또 해양생태, 농수산, 여성정책, 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분야별 정책 설계에 참여한다. 위원회는 시민주권 기획분과, 지방주도 성장분과, 시민 삶의 질 향상 분과 등 3대 분과 체제와 함께 '세계섬바람회 특별분과'를 별도로 운영해 국제행사 준비와 사후 활용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12일 현판식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7일간 활동을 이어가며 시장 업무 보고와 분야별 간담회를 거쳐 최종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영학 당선인은 "여수는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 등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며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전문성과 실무 중심으로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공동선별장에서 농업인들이 수확한 매실을 등급별로 선별하고 있다. 사진제공=순천시청

곡성, 디지털 농업 기술 보급...농가 경쟁력 강화

AI 활용 스마트팜 설계 과정 개강...29명 교육 참여

곡성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미래 농업을 선도하고 지역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16기 곡성명품농업대학 AI 활용 스마트팜 설계 과정(2차)' 개강식을 개최하고 실습 교육에 돌입했다. 곡성명품농업대학은 지역 농업인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단계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초 개강한 1차 과정의 높은 호응에 이어 디지털 농업 기술 보급 확대를 위해 이번 2차 과정을 마련했다. 이번 과정에는 시설재배 농가 가운데 스마트팜 설계 및 제어기술 습득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우선 선발해 총 29명이 교육에 참여한다. 교육은 6월 한 달간 총 7회, 28시간 과정으로 운영되며, AI 플랫폼을 활용해 농업인이 직접 스마트팜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실습 중심의 단기 집중 교육으로 진행된다. 지역 특화작목인 블루베리 재배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둔 1차 과정과 달리, 이번 과정은 스마트팜 설계와 자동화 기술 습득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교육생 전원에게 자동화 원격제어

키트를 제공해 직접 조립과 시스템 구축을 실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3월부터 이어온 블루베리 스마트팜 과정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이번 과정은 농업인들이 디지털 농업에 한 발짝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개강한 블루베리 스마트팜(1차) 과정은 44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총 21회, 92시간에 걸쳐 운영되고 있으며, 블루베리 재배 기술과 스마트팜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



장흥, 수산물 은누리상품권 환급 14일까지 1인당 최대 2만원

장흥군은 오는 14일까지 장남진장흥토요시장에서 '수산물 은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토요시장 내 지정된 점포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액의 최대 30%를 은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환급액은 1인당 최대 2만원으로, 3만 4000원 이상 구매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각각 은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방법은 카드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영수증)를 제시하면 은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고, 행사기간 중 1인 1회만 가능하다. 환급처는 장남진 장흥 토요시장 내 수산시장 3층 1층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환급행사가 고유가·고물가로 시름하는 군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침체된 전통시장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장흥군의 우수한 수산물을 구매하고 환급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gwangnam.co.kr

'최고 품질' 순천 매실, 전국 입맛 공략

수확기 5100t 출하 예정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순천 매실이 본격적으로 출하된다. 11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매실은 풍부한 일조량과 비옥한 토양 등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재배되며, 지역 농업인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최상의 상태로 출하된다. 출하된 매실은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 순천연합매실주를 비롯한 각 영농조합법인의 수매를 거쳐 서울, 광주, 대전 등 주요 도매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전국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경력단절 여성 등 30명 대상 병원동행매니저 과정 개설

보성군이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병원동행 매니저 양성과정을 개설했다. 군은 최근 보성행복마루 4층 회의실에서 경력단절 여성과 취업 희망 여성 30여 명을 대상으로 여성 취·창업교실 '병원동행 매니저 양성과정'을 개강했다. 이번 교육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취약계층의 병원 이용 지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현상에 맞춰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해 여성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돌봄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오는 30일까지 총 8회 과정으로 운영되며, 병원동행 서비스 현장에서 즉



보성군은 최근 보성행복마루 4층 회의실에서 경력단절 여성과 취업 희망 여성 30여 명을 대상으로 여성 취·창업교실 '병원동행 매니저 양성과정'을 개강했다. 사진제공=보성군청

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병원동행 매니저의 역할과 직무윤리, 노인 질환·소통 전문 기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CPR) 실습, 병원 이용 절차 및 현장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